

매출 증대 · 데스밸리 극복

탄소산업진흥원, 22일까지 3~7년차 대상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평균 1억원 상당 사업화 자금, 마케팅·투자유치·수출·멘토링 등 제공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창업 초기기업의 매출 극대화 및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 후 3~7년차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지난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스마트벤처캠퍼스 또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졸업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성공판정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와 발표평가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평균 1억원 가량의 사업화자금은 물론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수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진흥원은 대상 기업별로 진단 설계 후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담 멘토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상기업의 비즈니스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과 기업간 분야별 전문가 교류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쇼룸제작을 통한 온라인 B2B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대상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기업인사 오미, 텐센트 등의 바이어 매칭과 현지 벤처 캐피탈 등 투자연계를 통해 해외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방운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부·장 산업 육성과 더불어 기업지원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063-219-367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12대 서한국 은행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취임식은 서 신임 행장이 직접 준비한 은행 비전과 경영 철학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100년 역사 만들기 위한 6대 중점사항 제시

서한국 전북은행 신임 은행장 취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전북은행 첫 자행 출신 은행장인 서한국 은행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원 및 센터장,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서한국 은행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은 기존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서 신임 행장이 직접 준비한 은행 비전과 경영 철학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취임사 낭독 대신 이어셋을 착용하고 단상에 오른 서 행장은 33년 차의 금융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이 접종 기간에 전국의 11만7,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25만 4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2가 백신(형질형 0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염소의 경우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마리 이상 또는 염소 300마리 이상의

아끼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직원 덕분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정도(正道)를 걸으며, 전북은행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전북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용택 전 은행장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임 전 은행장이 일궈온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더욱 자랑스러운 전북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서한국 행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언택트, 디지털뉴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 산업의 생태계 변화와 인터넷 은행의 등장 등 새로운 경쟁 체계 속에서 전북은행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6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북은행만의 경쟁력으로 무장한 핵심사업의 정교화 및 고도화 ▲영업기반 강화와 신성장 동력의 지속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다각화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과 방향성 설정 및 디지털 전략 수립 ▲조직문화 혁신 ▲사람 중심 경영 실천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고객 중심 경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도민과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운영 위탁 선정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돼, 올해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본사 각 부서장, 지역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영이념 선포식'을 갖고 경영 활동의 새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공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북은 복권기금으로 조성, 2017년 7월 개소부터 5년 연속 경진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30일에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등 사회적경제기업 31개 기업과 함께 입주기업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성료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센터 공간 라운딩, 입주기업 소개 및 상호 네트워킹, 2021년 연간 사업 계획 순으로 진행돼 온라인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센터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360도 VR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LIVE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대표자 인사말을 영상으로 편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귀리 입힌 동물복지 치킨'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롯데마트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로 만든 '귀리를 입힌 동물복지 치킨'을 출시한다.

'귀리를 입힌 동물복지 치킨'은 롯데마트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기존의 맛있는 치킨에서 더 나아가 동물복지의 가치를 담은 치킨을 출시하는 것. 국내 최초로 유럽식 동물복지 생산시스템을 도입한 하림의 동물복지 닭고기에 쌀과 통귀리로 만든 튀김옷을 입혀 환경과 건강을 모두 고려했다. 신선한 닭고기의 부드러운 육질과 귀리의 고소한 풍미, 쌀의 바삭한 식감으로 맛도 놓치지 않았다.

'귀리를 입힌 동물복지 치킨'은 1일부터 롯데마트 멀티코너에서 1만2,800원에 판매한다.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롯데멤버스 L-point 회원에선 7일까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안심 경영' 새로운 이념으로

전기안전공사, 궁극적 목적 '국민안심사회 구현' 담아 새 노조 출범 따른 노사 공동 협약... 조직개편도 단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안심경영'을 새 경영이념으로 선언했다. 이는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사는 1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본사 각 부서장, 지역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영이념 선포식'을 갖고 경영 활동의 새 청사진을 발표했다.

경영이념으로 수립한 '안심경영'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가치 실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마음에 닿겠다는 공사 경영의 새 지향점을 설정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내가 항상 성실 ▲내가 먼저 도전 ▲내가 제일 열정 ▲우리와 함께 공정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안전과 국민안심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갖고 혁신을 위한 노력,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공사는 또한 이날 경영이념 선언식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범에 따른 노사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 측이 새 경영이념 선포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지속적 경영혁신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박 사장은 "이번 새 경영이념 선언을 계기로 국민중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변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와 검사기준 정립을 위한 '신재생안전처', 전기안전 정책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법령정책실',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 점검처'와 기술지원처를 통합한 '사업운영처'를 각각 신설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상점 시범상가 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상점 시범상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로 구분해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해도 기술이나 서비스 등 정보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ss.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로컬푸드 가치 넓히는 '응원군'

전북농협, 제철 레시피 제공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집콕 생활로 지친 소비자에게 전북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식탁, 로컬푸드 제철 레시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방문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요리의 기회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본 서비스는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에서 개발·검수한 자료로 기본 재료, 양념, 조리순서, 유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레시피는 3주마다 2개씩 제작해 전라북도 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jnhlocal.com)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따라하기 위해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전북농협 로컬푸드' 유튜브 채널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한식조리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소·염소 농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농식품부, 이달부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4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농가가 세심한 주의 기울여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이 접종 기간에 전국의 11만7,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25만 4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2가 백신(형질형 0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염소의 경우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마리 이상 또는 염소 300마리 이상의

접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체 접종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농가와 염소 농가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100% 보조)하며, 소 접종농가는 국가와 농가에서 절반씩 부담(50% 보조, 50% 자부담)하게 된다. 돼지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접종이 행해지고 있어 일제 접종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소·염소 농가가 일제 접종을 제대로 시행해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계획에 따라 대상 농가별로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에 재검사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역량강화 교육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무자식 습득을 위한 '기술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와 제주, 경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이달 1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의 청년농업인 약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전 신청자 외에도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관할 농업기술센터 4-H(사이에치) 및 농업인교육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과정과 심

화과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본과정은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우수사례 특강과 재무·세무회계 등 농산업 창업기초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심화과정은 지식재산의 이해와 제품 차별화 및 사업화 성공전략, 온라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진청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종합기술지원 시스템 마련 ▲영농단계별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 확대 ▲기술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제공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하며, 청년농업인의 성장단계별 4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